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1.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지의 바른 기운을 타고 육기(六氣)*의 변화를 부리며 무궁한 경지에서 노니는 자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신인(神人)은 업적을 자기의 공(功)으로 여기지 않으며, 성인(聖人)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

*육기(六氣): 음(陰), 양(陽), 바람, 비, 어둠, 밝음

- ① 예(禮)를 익혀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 ② 오감(五感)을 토대로 사물의 특성을 분별해야 한다.
-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을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
- ④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소요(逍遙)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선천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서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2. 현대 서양 사상이 감, 율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본질에 앞서는 존재로서 무엇에 의해 정의되기 이전에 존재한다. 인간은 존재 이후에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을: 인간은 전적으로 한 사람의 특정한 단독적인 인간이 되려고 한다. 신 앞에 혼자 서는 이 인간은 보다 큰 책임을 지면서 오로지 혼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 <보 기> —

ㄱ. 갑은 인간의 본질이 실존에 앞서 규정될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스스로 결단해 신을 따를 때 참된 행복에 이른다고 본다.
 ㄷ. 을은 주체성을 발휘하여 객관적 진리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구체적 상황의 개별적 삶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부르주아 아래에서 존재할 수 없다. 공업의 진보는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립 대신에 연합체를 통한 노동자들의 혁명적 단결을 이끌어 낸다. 부르주아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나) 우리는 국내 및 국제 문제에서 자유와 계획을 주장한다.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계획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 ① 노동자 계급의 급진적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붕괴시켜야 한다.
- ②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③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 수단을 전민 공유해야 한다.
- ④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 ⑤ 계획 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4. 동양 사상이 감, 율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성(性)이란 천(天)이 생성한 여러 가지 도리이며 순성한 것이다. 성은 마음의 이(理)이고, 정(情)은 성의 동(動)이다.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

을: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이(理)이다. 그러므로 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효의 이가 있다.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① 갑은 마음 안의 이지만 탐구해도 인격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을은 사물 속에 내재된 하늘의 이치를 옳은 행위의 근거로 본다.
- ③ 갑은 율과 달리 앎과 실천 사이에는 선후(先後)가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했다고 본다.
- ⑤ 갑, 율은 마음이 없으면 사물의 이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율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자에게 지각(知覺)되는 것이 각자에게 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견해가 거짓이라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참이 됩니다. 무지를 깨닫고 탐구하여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 ① 갑은 인간의 감각보다 이성인 진리 인식의 근원이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은 참된 앎이 곧 행복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유덕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율은 무지의 자각이 진리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본다.

[6~7]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은 이(理)가 발(發)함에 기(氣)가 따르는 것이니 본래 순선(純善)하고 악이 없다. 하지만 이가 발한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홀려서 불선(不善)이 된다. 칠정 역시 기가 발한 것이 중절(中節)하지 못하여 그 이를 멀하게 되면 방탕하여 악이 되는 것이다.

을: 어떤 일을 접해서 희로애락하는 것이 정(情)이다. 화내야 할 때 화내는 것은 정(情)의 선한 측면이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내는 것은 정(情)의 불선한 측면이다. 선한 측면의 정은 청명한 기를 타고 천리에 따라 곧장 나오는데, 그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실마리인 사단이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사단을 이가 발한 성으로, 칠정을 기가 발한 정으로 본다.
 - ② 을은 사단이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을 일컫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마음 안에서 측은지심이 발한 결과를 인이라고 본다.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요순(堯舜)이 성현이 된 것은 기질(氣質)의 맑고 밝음 때문이 아니고, 결주(桀紂)가 악인이 된 것은 기질의 탁하고 더러움 때문이 아니다. 기질의 편차는 선악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스스로에게 있으므로 금수(禽獸)와 같지 않다. 선을 행하면 내 공(功)이고 악을 행하면 내 죄가 되니, 이것이 마음의 권능이다.

- ① 인의예지는 본성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기질의 변화를 통해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 실천의 능력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인격 수양의 목적이 도덕적 사회 실현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사단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지닌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우정에서 신의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이제껏 신의 있는 친구가 없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덜 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경험에 앞서 의지를 선행적인 근거들로 규정하는 이성의 이념에 들어 있다.

을: 우정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보다 강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동기였더라도 옳지 않은 행동이다. 바람직한 궁극 목적은 자신의 선을 고려하던 타인의 선을 고려하던 양과 질에서 풍부한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 ① 갑: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이다.
- ② 갑: 인간은 경험 이전에 선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을: 모든 고통이나 쾌락은 자연적 감정으로 언제나 동질적이다.
- ④ 을: 행복 증대와 무관한 순수한 희생은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
- ⑤ 갑, 을: 자신의 행복과 도덕 원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9.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남녀의 목소리는 서로 다르다. 우리가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보살핌의 윤리가 보여 주는 진실, 즉 인간관계와 책임 등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에 의해 규정된 하나의 맥락 안에서 선을 추구해야 한다. 선은 전통을 통해 이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실천들에 내재해 있으며, 그것은 획득된 자질인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보 기>

- ㉠. 도덕적 실천에서 행위자 각각의 상황을 중시해야 하는가?
- ㉡. 개인의 독립성보다 타인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 ㉢.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 ㉣. 동정심보다 합리성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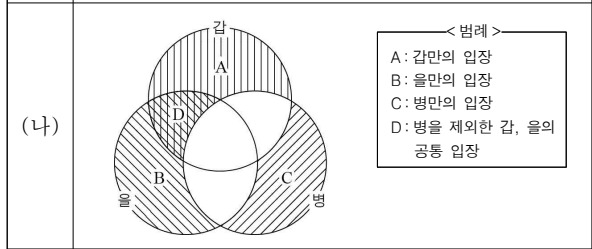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0. (가)의 갑,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들, 병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신은 최고선이며,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이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덕이다.

을: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있다.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우리는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병: 신은 곧 자연이며,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다. 인간이 우주의 인과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보 기>

- ㉠. A: 이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과 세계의 본성이기도 하다.
- ㉡. B: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 C: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다.
- ㉣. D: 신은 유일하며 세상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1.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욕계(慾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즉 삼계(三界)가 모두 공(空)이다. '나타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경전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성현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라. 네 의도를 비우고, 원하는 바를 끊어라.

<보 기>

- ㄱ. 무명(無明)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 ㄴ. 무아(無我)를 깨달아 중도와 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 ㄷ.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독(三毒)의 제거가 필요하다.
- ㄹ.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멸(生滅) 변화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구별은 그 행위로부터 유발된 고통과 쾌락 등의 소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로 도덕에 대한 우리의 소감을 산출한다. 공감이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을: 어떤 행위에 대해 한 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약 차감한 것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쾌락은 즐거운 것이며,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 ① 갑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덕과 악덕이 사회적 시인(是認)의 감정에 의해 구별된다고 본다.
- ③ 을은 공리에 일치하는 행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본다.
- ④ 을은 쾌락과 고통의 양이 행위 이전에 계산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13.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서양 세력에 대비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굳건히 다스리고, 밖으로는 힘을 키워 외부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므로 서양 문물을 금하는 것과 동시에 바른 학문[正學]을 드높여야 한다.

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바뀌어 고정될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우리의 도로써 저들의 기를 행한다면 오대주(五大洲)는 평정할 것도 없다.

<보 기>

- ㄱ. 갑: 성리학적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평등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ㄴ. 을: 정덕(正德)보다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중시해야 한다.
- ㄷ. 을: 서양 종교는 배척하되 우수한 서양 문물은 수용해야 한다.
- ㄹ. 갑, 을: 유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 의식을 지켜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몸을 닦아서 천명(天命)을 기다리는 것은 천명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을: 하늘의 직무(職務)는 작위[僞]를 가하지 않고도 이루어지고, 추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에 대해 생각을 더하거나 능력을 보태려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을 이용하나, 직무를 두고 하늘과 다투지 않아야 한다.

<보 기>

- ㄱ. 갑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도리의 근원을 하늘로 본다.
- ㄴ. 을은 하늘이 인간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ㄷ. 을은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여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교화를 통해 도덕적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가) 인간은 서로 배려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소속되며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다.
- (나) 인간은 합리적 이성으로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

◎ 학생 답안

(가)는 ㉠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토대로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중시하며, (나)는 ㉡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정체성을 중시한다. 한편 (가)는 (나)에 비해 ㉢ 사회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통합을 방해할 수 있고, (나)는 (가)에 비해 ㉣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방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는 모두 ㉣ 개인의 권리 보장과 공동선의 실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하지만 쾌락 때문에 더 큰 불쾌가 초래될 경우 우리는 그 쾌락을 포기한다.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우리는 인간이 지닌 이성적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신의 이성적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 ① 신의 법칙인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야 함을 간과한다.
- ②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외적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고통의 부재인 참된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들을 떼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유일한 권력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을: 본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그를 정치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기본적 권리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정부가 설립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① 갑: 자연 상태에서도 선악을 규정하는 도덕규범이 존재한다.
- ②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근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 ③ 을: 인간의 자연권은 자발적인 사회계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 ④ 을: 특정 국가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
- ⑤ 갑, 을: 통치자에게 권리를 위임한 인간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다.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 자기의 마음을 좇아서 진여(眞如)의 본성을 단박에 깨쳐야 한다.
 을: 중생이 곧 부처임을 미혹한 범부가 단박에 깨쳤더라도 오랫동안의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은 후에도 법력으로써 익히고 닦아야 한다.

<보기>

- ㉠. 참선 수행보다 경전을 통한 깨침을 중시해야 하는가?
- ㉡.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하는가?
- ㉢.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의 구제에도 힘써야 하는가?
- ㉣. 자성(自性)을 깨친 후에도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
 을: 모든 사람이 소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는 충분조건이며, 정의로울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로움이다.
 병: 모든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구상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분배의 대상인 사회적 가치들의 다원성은 각각의 가치에 대한 분배 기준의 다원성과 부합한다.

(나)

<보기>

- ㉠. A: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 ㉡. B: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배 영역을 세분화해야 하는가?
- ㉢. C: 최소 국가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국가도 정당화 가능한가?
- ㉣. D: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는 없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0.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善)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선이다. 의사가 선의 이데아를 봤다고 해서 의술이 더 능숙해질지는 의심스럽다. 선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무엇이 선한지 알 수 있고, 습관을 통해 품성적 덕을 형성해야 한다.

- ①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을 발견해야 한다.
- ②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 ③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한다.
- ④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이다.
- ⑤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